

제 공 일 자	2014. 5. 20(화)	담 당 자	전용식 연구위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3775-9115)	연락처	3775-9035	총2매

제목: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기업과 가계의 부채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경제의 장기부진이 초래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 완화, 가계부채의 연착륙, 그리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모색해야 함

보험연구원(원장 강 호)의 전용식 연구위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채원영 연구원은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일본 경제의 장기부진 원인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상황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경제는 인구고령화와 부동산가격 하락 속에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과 같은 경제의 장기부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우리나라와 일본의 1990년대 초반 경제상황을 비교한 결과, 내수 위축과 경상수지 확대, 인구고령화 정도, 기업의 자금수요 감소 등에서 양국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경제의 장기부진 원인을 모색하는 최근의 연구들은 일본 경제가 대공황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재정정책 때문이고, 기업의 부채조정에 따른 자금수요 감소와 투자 감소가 일본 경제의 장기부진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의 부채조정으로 기업부채가 감소(1% 감소)할 경우 GDP 성장률은 7년 동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소폭은 최대 0.19%p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계부채가 1% 감소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최대 0.16%p 감소하고 그 영향은 15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장기부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상환 가능성을 고려한 부채관리가 필요하

고 부채조정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부채조정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정정책이 부채조정으로 인한 경기부진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의 효율화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